

질곡의 현대사 관통한 신학철 작품 광주서 본다

광주시립미술관 민주인권평화전 '시대의 몽타주, 60년 회고전'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1·2전시실
예술검열 논란 '모내기' 등 90점
"민중미술 원로작가 작품 만날 기회"

한국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작가가 60여년간 그려 온 날카로운 작품들을 총정리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4년 민주인권평화전 '신학철-시대의 몽타주, 60년 회고전'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본관 1·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신 작가의 1960년대 실험미술부터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품 세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 △망각된 역사의 소환 △시대를 위한 기념비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 그의 작품세계를 시대순으로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고 신 작가의 예술세계에 분기점이 된 작품들을 조명하는 특별 섹션도 마련됐다.

먼저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에서는 다양한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 현실을 고민한 신 작가의 초기 작품들이 전시된다. 포토편타주 기법의 생성 과정과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망각된 역사의 소환'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사건을 환기하며 전달하고자 한 주된 메시지를 담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 연작이 전시된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한 한국 사회의 흐름과 거대 담론에서 개인의 서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를 위한 기념비'는 중산층과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격동기의 역사와 삶을 조명한 작품들로 수놓는다. 시민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고향 풍경과 같은 이상향의 모습도 담겼다.

특별 섹션에서는 신작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제작한 '한국현대사-초흔극', 예술 작품 검열 논란의 중심이 된 '모내기', 현대인의 초상을 거대 서사로 표현한 '갑순이와 갑돌이' 등 주요



12일 찾은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 신학철 작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작품과 관련 아카이브가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모내기'는 외부 반출이 여전히 금지된 1987년 작품이 아닌, 1993년 신 작가가 원작을 재제작한 작품이다.

원로 작가 신학철은 과거와 현재, 동시대를 거대한 시공간으로 분할하고 재구성해 이를 하나의 몽타주로 형상화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현실 비판의 참여미술과 서민미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강

조했다. 이 같은 그의 의지는 격동의 시대 속 서민들의 삶과 이상세계가 투영된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그는 또한 단순히 민중미술을 넘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로 주목받아 왔다. 일본관동대지진·한국전쟁·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시대를 비판적 시각으로 그려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신 작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전보다는 단체전 위주의 전시를 해 온 신 작가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에서 이번 회고전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전시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신 작가의 작품에 담긴 시대와 예술은 물론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라며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신학철의 주요 작품들을 모두 확인할 기회다. 많은 관객이 전시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연구를 진행하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연구기관들이 모여 지난 10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킵오프 행사를 갖고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전남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광역 협의체 참여

문화재 연구기관 협의체 출범
전국 7개 기관...상호협력 강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문화유산 연구기관들의 협의체가 지난 10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킵오프 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2일 전남도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전국의 광역 문화재 연구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관련 현안 발굴 및 공동과제 추진, 지역학 연구 및 협업, 법령개선, 정책 및 신규 연구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조직적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지역문화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공동의 아젠다 발굴, 정부 예산의 확보, 표준화된 보존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강화된 조직 운영으로 참여 기관들이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문화유산 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협력 워크숍' 개최

17~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교류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는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에만 국한되지 않는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프로젝트87, '겨울 연극 페스티벌' 공연

19~28일 광주 동구 예술극장 통
'지상 최후의 농담' 등 세 작품

프로젝트87이 주최하고 극단 좋은친구들, 인드림컴퍼니가 주관하는 '겨울 연극 페스티벌(사진)'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동구 호남동에 위치한 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공연 기간 총 3개의 오세혁 작가의 작품이 공연되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지상 최후의 농담', 24일부터 28일까지는 '분장실 청소'와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을 무대에 올린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지상 최후의 농담'은 포로수용소에서 10분에 한 명씩 끌려 나가 죽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 앞에서 웃으며 멋지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농담을 시작한 포로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안운극 연출가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우리는 선택받아서 사는 게 아니듯 선



택받아서 죽는 것도 아니다. '예정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2주차에 공연되는 '분장실 청소'

는 힘든 재정 상황 때문에 철거가 결정된 지하 극장으로 온 두 용역과 배우가 나누는 이야기다. 아무런 힘이 없는 배우는 이 상황 속에서 극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 배우로서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에서는 생활이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된 가족이 우연히 같은 날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해져 서로를 속이며 돈을 빌리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에 공연되는 세 작품 모두 연출한 오세혁 작가는 '보도지침', '레드 체플린' 등을 집필한 연출가이자 극작가다. '지상 최후의 농담'은 지난 2016년 서울연극인대상 극작상을 수상했고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은 2011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희극부문에 당선된 바 있다.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15일까지 사전예매가 진행된다. 박찬 기자

광주대 박시은 학생, 대한민국 디자인 문화대전 '대상'

대상 '그리드의 경계를 넘어서'
광주대 디자인학과 다수 입선

광주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가 '2024 제43회 대한민국 디자인 문화대전'에서 대상을 포함해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대회는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개최돼 전국의 고등부, 대학·일반부 참가자들이 총 811개 작품을 출품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광주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는 이번 대회 시각디자인 부문에 출전한 4학년 박시은 학생이 '그리드의 경계를 넘어서' (그래픽디자인)라는 작품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4학년 박현준 학생은 '소금섬' (패키지디자인)으로 은상을



광주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가 '2024 제43회 대한민국 디자인 문화대전'에서 대상을 포함해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제공

받았고 다수의 학생이 특선 및 입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역량과 창의성을 입증했다.

한편 광주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는 창의적 사고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

며 학생들이 다양한 디자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찬 기자